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이원택 도지사 후보 중심으로 결집해야"

전주매일

14면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전원 수상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음 4월 13일) 제39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선 사전투표

각 후보자들, 핵심 지지층 결집 위해 투표 독려 사활
도지사 선거에서 예년보다 높은 사전투표율 나타날 듯

모의투표 시연 위해 투표소 들어서는 전북선관위원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덕진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오늘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유권자들은 별도의 주소지 제한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 본 투표일보다 편리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투표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진영도 지지층 결집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사전투표율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 초반 기세를 선점하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사전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카드 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작성해 카카오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 캠페인을 독려하며 많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유권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시·군의 경우 사전 투표 결과가 전체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조직력과 정당 기반이 우위를 점할 것인지, 아니면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도민 추천과 지지를 바탕으로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53.1%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사전투표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은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곧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해 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사전 투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이 후보가 투표를 진행한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29일 오전 9시 30분 전북도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고 밝히며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진보당 백승재 후보 역시 이날 오전 전북도청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 선대위 관계자도 오늘 오전 8시 30분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무소속 후보인 김성수 후보는 오는 6월 3일 본 투표일에 익산 석암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향후 4년간 전북도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 방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반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올 첫 검정고시 합격률 84.5%

386명 중 326명 합격… 만점자 총 6명 배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26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건강한 사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된 검정고시에 도내 학교 밖 청소년 386명이 응시해 326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8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합격률인 78.9%보다 5.6%p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전주시 3명, 익산시 1명, 완주군 2명 등 총 6명의 만점자가 배출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우수한 학업 역량을 보여줬다.

도는 이번 성과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지원 사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1대1 학습멘토링을 비롯해 검정고시 교재 지원, 모의고사 운영,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예정된 제2회 검정고시에도 지속적인 학습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국립의전원법 대통령 공포 의료 등 '삼중 효과' 기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달 26일 공포
전입 인구 증가, 학교 등 인프라 수요로 이어져
전북 AI·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시너지 효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토대가 갖춰진 가운데 유치 최적지로 꼽히는 남원을 중심으로 전북 전역에 걸쳐 의료·인구·경제 분야의 복합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5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대통령이 공포했다. 국립의전원 설립이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정부 정책으로 공식 뒷받침된 만큼, 8년간의 지역 숙원이 마침내 현실로 옮겨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들어서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기피·필수 과목의 전문의가 체계적으로 양성되고,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선발·교육·배치 체계가 전북에 구축된다. 이는 만성적인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남원의료원이 국립의전원 연계 거점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하면서 지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인 남원·장수·순창 등 전북 농촌 지역까지 공공의료 혜택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측면의 효과도 주목된다.

국립의전원 유치 시 전국에서 우수한 대학원생·교수진·연구원과 그 가족이 유입돼 남원의 생활 인구가 늘고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남원으로서는 젊은 전문 인력의 유입이 지역 활력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전입 인구 증가는 지역 내 학교·복지·문화 인프라 수요로 이어지며, 도시 전반의 생활 기반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하다. 캠퍼스 조성과 기숙사·연구시설 건립에 따른 대규모 건설 투자는 건설 경기 부양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

학생·교직원 등 고정 소비층이 형성되면 국립의전원 주변으로 원룸·식당·카페 등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경제 활력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건설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 소비 기반을 갖춘 대학가형 경제권이 남원에 새롭게 형성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데이터·바이오 연구·AI 헬스케어 관련 연구소와 벤처 창업 생태계가 조성돼 전북이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의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되고 있다. 단순한 의학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보건의료와 첨단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축이 전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AI·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은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대통령 공포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만큼, 후속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의전원법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3월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4월 본회의 의결, 5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순차적인 입법 절차를 밟아왔다. /이만호 기자